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연아와 한국인의 미소



최동호
시인·고려대 국문학과 교수

캐나다 세계빙상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김연아의 미소를 보며 한국인의 미소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았다. 완벽한 경기를 마치고 난 다음의 무뎠무상함 미소, 시상대 위에서 미소, 귀국 후 보여 준 미소 등은 각기 다른 것이지만 그의 독특한 미소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촉즉발의 남북 긴장이나 국내 정치정세의 복잡다단함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이었다.

한국인에게 과연 언제부터 미소가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 대개 세 가지 정도의 미소를 떠올려 볼 수 있다. 우선 신라의 수막새에 새겨진 신라 여성의 미소가 있다. 소박하고 진솔하다. 마음씨 좋은 사골 아낙네 같다. 사슴이 없어 보이는 그 미소를 다시 눈여겨 살펴보니 뒤피리가 약간 올라간 것이 김연아와 비슷하다. 제법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여성의 미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한국인의 미소일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서산 마애삼존불의 미소이다. 여기에는 백제인의 미소가 담겨 있다. 느긋하고 여유가 있는 남성의 미소다. 서민적이고 친근한 느낌이 불려있으킨다. 위압적인 면이 하나도 없는 이 삼존불로 보아 당시 부처와 대중의 관계가 매우 친밀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반가사유상의 미소이다. 그 자체나 형태미에서 반가사유상은 한국적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불상이다. 잔잔하면서도 장엄하다. 여기서 장엄은 크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소가 거느리는 사유의 장엄함이다. 깊은 것 같기도 하고 편 것 같기도 한 경계에서 고통받는 중생의 아픔을 너그러게 포용하는 미소이다.

반가사유상은 삼국통일 당시에 겪어야 했던 중생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생사의 경계에서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우는 것 같기도 한 영원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한국의 여러 문화유산 중에서 서양인이 가장 감탄하는 것이 반가사유상이라고 한다. 반가사유상이 보여주는 평화로운 미소는 서양의 조각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서양인들에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다. 지옥

문 앞에 턱을 괴고 앉아 있는 ‘생각하는 사람’은 신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고뇌이다. 로댕의 조각에는 고통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평화는 없다. 아무리 평화를 갈망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투쟁과 갈등으로 심판받는 인간의 숙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조물주인 신과 인간의 경계가 분명하고 원죄를 먼저 설정하지 않고서는 그 신앙적 체계를 세울 수 없는 서양인들에 의해 반가사유상의 미소와 같은 조각은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형상이나 지옥문 앞에 심판을 기다리는 인간의 모습이 그들의 영혼에 새겨진 인간의 얼굴인 것이다.

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보여 준 미소는 앳된 소녀의 것이었다면 이번에 보여준 미소는 한층 성숙한 여성의 것이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완벽한 연기가 만들어진 무뎠무상의 미소이다. 그의 미소는 부드러운미에서도 겸손하고 겸손하면서도 담담하다. 그 부드러운 뒤에는 강렬함이 있고 겸손함 속에는 고난도의 훈련을 이겨낸 극기의 정신이 배어있으며 담담함 속에는 어떤 시련도 극복하고 승리한 인간의 무한한 기쁨이 들어 있다.

여기서 김연아의 미소를 논하는 것은 단순히 그를 영웅시하거나 그를 예찬하기 위

해서가 아니다. 그의 미소에서 한국인이 지닌 시련 극복의 의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이다. 그의 미소에서 앞으로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 나갈 한국인의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미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의 심성이 지닌 본연의 모습이며 그것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우리 자신의 얼굴이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로 한 때 후진적 열등감을 위로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시상식장에서 캐나다 합창단이 애국가를 한국어로 부를 때 느끼는 감동은 세계 속의 한국을 실감하게 한 순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연아의 역사적 쾌거는 그만의 것이 아니다.

김연아의 우승이 보도된 다음날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 나이트 어텐이 ‘김연아 정말 대단하잖아’ 하고 젊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되풀이 하고 있었다. 그 어른은 무언가 젊은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김연아의 미소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한 장면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부드럽고 겸손하고 담담한 한국인의 미소가 더 크게 세계를 향해 펼쳐나가 우리 모두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의료칼럼

자신있게 웃는 여자가 아름답다



최필선
빛고을미술원 원장

도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웃는 미소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가 반갑지 않은 여성들이 있다. 바로 웃음으로 인해 얼굴 주름이 깊어질까 두려워하는 여성들이다. 이들은 웃을 때 생기는 눈가주름을 방지하기 위해 무표정하게 있거나 광대 부분을 손으로 눌러 내리기도 한다. 삼담을 할 때에도 주름 때문에 마음껏 웃지 못한다는 고충을 털어놓기도 한다.

이런 여성들에게는 피부 탄력과 볼륨을 유지시키는 콜라겐 관리를 적극 추천한다. 콜라겐은 수분을 저장해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단백질이다. 20대 중·후반부터 자연노화로 인해 피부 속 콜라겐의 양이 매년 1%씩 줄어들면서 노화가 시작된다. 또한 과도한 자외선 노출이나 호르몬 분비 등의 영향으로 콜라겐이 파괴될 수 있다.

이렇게 사라지는 피부 속 콜라겐을 잡기

위해 스킨트라 시술이 주목받고 있다. 대부분의 주름개선 시술이 국소 부위에 특정한 물질을 넣어 일시적으로 주름을 펴주는 반면, 스킨트라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스스로 탄력을 되찾고 주름을 개선시킨다. 이 같이 본인 스스로의 콜라겐이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원리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자연스러운 주름 개선이 가능하다. 특히 주름 개선 효과가 2년 이상까지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어, 반복적인 시술을 받아야 했던 일부 주름 개선용 필러 제품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스킨트라는 미국 FDA로부터 미용 용도로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주 구성성분인 PLLA(Poly-L-Lactic Acid)는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로 시술 후에 수분, 이산화탄소, 당으로 분해돼 인체에 남지 않는다. 30~50대 연령대가 가장 많이 시술받고 있

지만, 20대에도 불뿔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교정의 의미로 시술받기도 한다. 이미 노화가 많이 진행된 60~70대도 약물 투여량과 시술 횟수를 조절해 시술받고 있다.

시술 후에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땀이 나는 뜨거운 사우나 이용 및 심한 운동을 피하고, 음주나 흡연을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5일간 하루 5회, 한 번에 5분간 시술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야 피부 진피층에 들어간 콜라겐 생성물질이 골고루 퍼질 수 있다.

시술 전에는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마다 다른 얼굴 윤곽과 형태, 주름의 깊이 등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품, 정량을 사용하는지, 시술 교육을 받은 전문 의료진이 시술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가져올 광주의 행복



안기석
체육대학교지원국장

중인 유소년, 근력 약한 여성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체력수준에 상관없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뛰어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따뜻한 목욕물에 몸을 담그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흥분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키며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집중력이 강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영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생활스포츠이며, 2012년 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즐기는 스포츠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중·중·고교는 물론 학생 수가 수만 명인 대학교에서도 수영장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2000년대 이후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며 생활체육으로 수영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영장 시설 수용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스포츠 러빙 시티’(Sports Loving City) 광주를 표방하며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광주는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르고 나면 남부대학교 수영장(건축연면적 2만㎡, 1만6000석, 50m 10레인, 다이빙 수영장), 광주여자대학교 다목적체육관(건축연면적 2만7000㎡, 9000석) 등 국제대회 규격에 맞는 최첨단 수영장을 갖게 된다. 그래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경기장 신축 없이도 100% U대회 시설로 재할용하여 치를 수 있다.

광주발전연구원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산유발효과 2조4000억원, 부가치기 유발효과 1조원, 고용창출 2만4000명 등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와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수영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가동, 학교 수영팀 증설, 생활체육 수영 지원 확대 등 수영 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시민들은 더욱 건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도시, 광주의 미래 모습이 아닐까.

특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15년 러시

아 카잔대회부터 처음으로 챔피언십과 마스터즈 대회가 통합개최되어 200여 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등 2만여 명이 참가하게 되며 전 세계 10억 명이 TV로 시청하고, 40억 명에게 언론 노출이 되는 국제적 스포츠 행사이다. 막대한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국제도시 광주의 브랜드 홍보효과도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엘리트 체육 선수들의 기량을 펼치는 관람 이벤트만은 아니다. 본 대회에 이어 아마추어 동호인 대회인 마스터즈대회가 보름 동안 열려 선수뿐만 아니라 동호인들이 직접 참가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대회가 열린다.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와 관광객들이 시내 곳곳을 누비며 우리 남도의 멋거리와 문화를 즐기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짜릿한 일이다.

활기차고 건강한 행복도시는 멀리 있지 않다.

2013년 7월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 광주”라는 함성이 울려 퍼지길 기대해 본다. 그 함성이 시민의 건강한 삶을 일구는 큰 결음의 시작이다.

가짜 전문병원 수도록...병원 과장광고 엄단해야

인터넷을 열면 스펠메일이나 광고 메일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광고가 바로 임플란트 광고이다. 임플란트의 합리적인 가격 혹은 임플란트 치료비 얼마나 아십니까 등이다.

충치를 앓고 있거나, 충치로 치아를 빼내어 보철물로 버티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임플란트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물론 언젠가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 가격이다. 한 개에

200~300만원씩 하는 가격 때문에 쉽게 치료할 엄두를 못 내는 게 바로 임플란트이기다 한다.

그런 와중에 요즘은 치료에서 임플란트 전문이나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는 문구를 흔히 본다. 하지만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 이는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황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보니 임플란트 전문이나 전문병원은 현행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전문병원이 아닌 데도 21개 치과 병원과 의원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물론 전부가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치과의 시설이나 규모 등을 과장해서 광고하거나 의료진의 경력과 시설건수도 과장 광고했다고 한다.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1만4000여명이 임상경험을 거쳤거나 1만여 건을 시술했다고 광고하는 방식이다. 거기다가 급나 하나 가격 정도로 임플란

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이니 이는 한치도 틀림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걸 광고한 병원과 의원들은 사실상 사기꾼에 가깝다. 그것도 뇌신경과 연결된 치아문제를 치료하는 치과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이런 허위공고를 일삼는 곳이 임플란트뿐만 아닐 걸로 안다. 각종 성형수술도 마찬가지다. 당국의 철저하고 강력한 단속과 규제를 바란다.

▲임정희·광주시 동구 총장로

社說

광주농산물유통센터 수입산 판매해서야

호남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농업이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장한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지역 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라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수입 농산물을 전시·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 지난 2011년 7월 사업비 900여억 원을 들여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 연면적 4만532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신축·개장했다. 농도인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해 농어민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근 본보 취재기자가 이 센터의 '식재료전문매장'을 확인한 결과, 콩나물과 숙주나물, 다진 마늘 등 중국산 농산물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또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비롯해 중국산 참조개, 미국산 명란 등 냉동 수산물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확인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산품도 외국산이 상당수여서 농협의 '식재료전문매장'을 '수입산 전시장'으로 착각할 정도라고 한다. 또, 음식점을 비롯한 일부 학교들이 이곳에서 구매한 농협 영수증을 근거로 국내산을 쓴 것처럼 위장하는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다니 '누구를 위한 농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센터 측은 "식재료전문매장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없고 자영업자를 상대로 회원제로만 운영돼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일반인도 얼마든지 카드를 발급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여서, 이는 구차한 변명에도 불과하다. 또,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수입산을 판매한다는 측면도 있겠으나 이 역시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농협은 전국 농산물유통센터 운영 실태를 전면 조사해 수입 농산물을 수거하는 등 애초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농민은 물론 지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진흥원 혁신도시 이전 재검토라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해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잇따라 이전 재검토 발언을 하고 있어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나주시와 지역민들은 이전 방안에 맞춰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찬물을 끼얹는다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이계철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인터넷진흥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주혁신도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가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최근 사이버테러가 발생하자 이명박의 고위공직자서는 이전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인터넷진흥원은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지난해 말 이전 계획 취소와 일부 부서 인원을 감축하는 등 혁신도시 내 3만4318㎡ 부지에 국비 344억 원을 들여 연면적 2만1488㎡ 규모로 신청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확보가 안돼 부지 매입조차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성훈 나주시장은 26일 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해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잇따라 이전 재검토 발언을 하고 있어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나주시와 지역민들은 이전 방안에 맞춰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찬물을 끼얹는다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혁신도시서는 낙후된 지역 실정을 감안,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참여정부 때 입안돼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나주 혁신도시는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15개 이전 대상기관 중 인터넷진흥원 등을 제외한 13개 기관만 신사옥 공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하며, 인터넷진흥원이 계획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맡아보아야 한다. 재검토 운운하는 건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차질없는 이전을 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지난 2007년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다이하드4' 라는 영화가 인기였다. 정부의 네트워크 전선망을 파괴해 미국을 장악하려는 자들에 대해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가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영화에서 미국의 교토, 통신, 금융, 전기 등 모든 네트워크가 테러리스트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미국은 공황상태에 빠진다.

지난 3·20 사이버테러가 오버랩 되는 영화다. 영화 다이하드 4에 비하면 3·20 사이버 테러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언제든 영화속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화이트 해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이트 해커란 순수한 학업·공부 목적의 해커, 선의의 해커를 의미하며 민·관에서 활동하는 보안 전문가들을 통칭한다. 고의적으로 인터넷 시스템을 파괴하는 해커인 '블랙해커'나 '크래커'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들은 네트워크에 침입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해커와 같지만, 미비한 보안 시스템을 발견해 관

수준의 해커를 양성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온라인과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몇 년 전부터 화이트 해커를 키우기 위해 국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초보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보안기술자 양성수준이다. 국내에서 화이트 해커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인재 양성 차원의 전문 교육기관과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화이트 해커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화이트 해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洛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문화 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F A X 227-9600> <F A X 22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체 육 부 2200-697 제 목 부 2200-699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다 지 인 실 2200-536 프로젝트 팀 2200-55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서울 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